

PEOPLE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담양군-장성군

고향사랑 상호기부 실천 '훈훈'

담양군 농업유통과와 장성군 농업축산과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고향사랑 상호 기부'를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지역 간 상생협력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담양군 농업유통과와 장성군 농업축산과 직원 24명이 함께해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로의 지역에 대한 응원과 상생의 뜻을 담아 총 240만원을 기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서로의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농협 광주본부

'오이 데이'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주차장에서 열린 제4회 금요장터에서 공동농협과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N들빈', 농협 광주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오이 데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건강식품으로 적합한 채소로 알려진 오이 소비촉진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금요장터를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나눔행사와 할인판매를 함께 실시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오이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현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오이는 숙취해소와 운동 후 갈증완화에 좋은 채소"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에 금요장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나주 (주)미스터덕

시설에 훈제오리 70박스 기탁

나주시는 최근 (주)미스터덕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달라며 훈제오리 70박스(1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기탁받은 후원 물품은 훈제오리 1kg 700개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오리 도축·가공·판매 전문업체인 (주)미스터덕은 나주 동수농공단지 내 소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00포를 후원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수장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7@gwangnam.co.kr

광주신세계 "미술 꿈나무 응원합니다"

2025 광주학생 미술대전 '성황'

27일까지 시립미술관 등서 전시

(주)광주신세계가 후원한 2025 광주학생 미술대전이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 됐다.

6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2025 광주학생 미술대전 시상식이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 김영희 광주미술관회 이사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학생 미술대전은 지난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시작했다.

지역 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행'을 주제로 그린 작품을 이메일로 접수받았다.

이후 평가를 위해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사생대회를 실시했다. 이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 현장 사생대회에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연필과, 색연필, 크레파스를 이용해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완성, 대회의 공정성을 도모했다.

광주신세계는 지역 내 미술 꿈나무들에게 역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2025 광주학생 미술대전 시상식에서 수상한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상작 60점은 광주시립미술관(1일~11일)과 광주신세계갤러리(15일~27일)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된다.

광주신세계는 지역 내 미술 꿈나무들에게 역

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광주학생 미술대전을 개최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가 후원한 광주학생 미술대전이 지역 학생들의

관심 덕분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세계는 현지법인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 거주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특강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외국인 금융특강...지역정착 지원 앞장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 거주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특강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특강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필수 금융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신경구)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은행 계좌 개설 절차, 합리적인 카드 사용 방법, 신용점수 관리 요령,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등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훈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장은 "외국인들

위한 금융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수 지식을 함양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 기관과 협력해 금융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는 광주·전남 최초의 외국인 전담 점포로, 외국인의 근로 형태에 맞춰 일요일에도 점포를 운영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한국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원, 주민 선진지 견학

한국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원이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나섰다.

6일 한국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2차례에 걸쳐 전남 고흥군 두원면 두곡지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고흥군만이 갖는 특색 있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결성 등 특화된 주민 역량을 더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견학은 제주 귀덕마을과 전북 순창 유촌리 버들지구 등 우수마을 2곳에서 진행됐다.

두곡지구 마을 주민들은 제주 귀덕마을에서 개최된 마을을 답사하고, 순창 버들지구에서는 마을 담당 정비 우수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임경숙 한국인적자원개발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역 단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정주 여건 개조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흥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마을공동체가 상호협력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와 최근 순천제일대학교와 대학 다목적회의실에서 농업·농촌 현장학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 전남본부-순천제일대, 농업·농촌 현장학습 협약

농촌 일손돕기·재능기부 확대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순천제일대학교와 대학 다목적회의실에서 농업·농촌 현장학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은경 농협 전남본부 부본부장, 주철호 농협 순천시지부장, 김영화 순천제일대 부총장, 경강훈 순천제일대 사회봉사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순천제일대는 대학생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인 편의 증대와 농촌 발전에 동참하며, 농촌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대학 발전기금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서 후원한다.

특히 순천제일대는 농촌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노후주택 가스·전기점검 및 LED 전등 교체, 도배

·장판, 재할 마시지, 화재감지기 설치 등 학생들의 전공 분야의 재능을 심부 발휘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업·농촌을 위한 봉사활동에 동참해준 순천제일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순천제일대 사회봉사단과의 협조해 도움이 필요한 농촌 곳곳을 찾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성동제 순천제일대 총장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준 농협에 감사드린다"며 "순천제일대도 농촌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 전남본부와 농업·농촌 현장학습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교는 광주대, 초당대, 청암대, 순천제일대까지 총 4개 학교로 확대됐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국민연금 광주본부, 조선대서 취업 멘토링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바로알기 교육 및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 바로알기 특강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공단 채용제도에 대한 설명과 취업 멘토링 시간을 통해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이 직접 체험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했다.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장은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



민연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동구, 자립준비교실 운영 업무협약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지난 2일 광주일자리스타이션동명파 보호소로 예정 아동들의 자립준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1동, 제주시 이도1동과 상호 고향사랑기부 광주시 광산구 첨단1동 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가 지난 1일 제주시 이도1동 지생단체장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 광산구